https://doi.org/10.36034/yncdoi.2021..79.201

晦川 宋鴻來의 處士的 삶과 사상

이 세 동*

Ⅰ. 머리말
Ⅱ. 송홍래의 처사적 삶
1. 바름을 닦음[修正]: 成學과정과 그 특징
2. 덕을 길러 시대에 순응함[德盛/能靜]: 교육자의 길
3. 천명을 알고 올바른 도리를 드러냄[知命/著是]: 巴里長書 서명
Ⅲ. 송홍래의 성리사상
Ⅳ. 맺음말

국문초록

송홍래가 살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국토가 식민지가 되는 변혁의 격동기였다. 본 논문은 이 격동기에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본의 신민으로 살기를 요구받았던 한 선비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글이다. 그는 일본의 신민이기를 거부하고 조선의 처사로 남기를 원했던 지식인이었다. 일본의 신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시대 이 땅의 보편적인 정서였지만, 누구나 다 처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사는 올바름을 닦고 덕을 길러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송홍래는 분명 처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leesd@knu.ac.kr

사였다.

그는 올바름을 닦기 위해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스승들을 찾아다님에 있어 학파와 색목을 구분하지 않았다. 장복추와 이종기는 執贄를 통해 맺어진 그의 훌륭한 스승들이었으며, 김흥락과 김도화, 장승택과 김형모, 한주학파의 곽종석과 이승희와 장석영, 기호학파의 전우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명망가들이 모두 그의 집지하지 않은 스승들이었다.

그는 이 스승들에게 배워 덕을 기르고 학문을 익혀, 스스로 또 다른 스승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은 이 새로운 스승의 학문과 덕행에 감동해, 자원하여 學舍를 세우고 계를 만들었으며, 그의 장례 때에는 100여 명이 제자로서의 상복을 입었다. 그 제자의 후손들은 현재까지도 격년으로 釋菜禮를 거행하며 회천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길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유학의 맥을 면면히 이어온 조선의 선비로서 세계만방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목숨을 담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올바름[義]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136명의 동지들과 함께 조선 유림의 대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처사인 것이다.

그는 성리학자라고 할 만한 전문적인 글들을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학술의 근간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퇴계의 학설을 종지로 삼고 기호학파의 학설을 절충하려 했던 스승들의 견해를 지지하고 따랐다. 퇴계학파의 일원임을 분명히 하면서, 스승의 학설을 묵수했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宋鴻來, 處士, 교육자, 巴里長書, 성리학, 퇴계학파, 心合理氣, 心卽理

Ⅰ. 머리말

晦川 宋鴻來(1876~1948)는 조선의 끝자락에 태어나 일제의 압제를 온전히 겪은 조선의 處士이다. 荀子의 말처럼 "덕이 성대하고 일에 순응하며 바름을 닦고 천명을 알며 올바른 도리를 드러내는 자"[1]가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엎드려 있을 때, 그를 처사라고 부른다면 송홍래는 분명 처사의 길을 갔던 사람이다. 순자가 다시, "오늘날의 처사라는 사람들은 무능하면서도 스스로 유능하다고 하고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끝이 없으면서도 욕심이 없는 체하며, 행동이 거짓되고 마음이 음험하며 더럽지만 억지로 고상한 말을 하고 삼간다."[2]라고 한 말에 비추어 보면, 송홍래는 순자가 살았던 그 시대 '오늘날'의 처사가 아니라 조선의 처사였다. 망해버린 조선이지만 그 조선이 지켜왔던 유의미한 가치들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조선의 선비였던 것이다.

20세기 전반을 우리와 같이 살았던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일이다. 생전의 그를 직접 보고 들었던 이목들이 아직 남아 있기에 그의 생애를 객관화하기에는 정서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그의 삶에는 동시대의 타자들과 다른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판단 때문인 바, 본고에서는 그에 대한 傳記類의 글들을 중심으로 그 '차별성'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 궤적을 가능케 한 그의 사상도 함께 탐색해 볼 것이다.

---

1) 『荀子・非十二子』: "古之所謂處士者, 德盛者也. 能靜者也. 修正者也. 知命者也. 著是者也."

2) 위의 글 : "今之所謂處士者, 無能而云能者也. 無知而云知者也. 利心無足, 而佯無欲者也. 行僞險穢, 而彊高言謹愨者也."

Ⅱ. 송홍래의 처사적 삶

송홍래의 자는 順翊이고 호는 회천이다. 관향은 冶城(경남 합천군 冶爐面 일대)인데, 이곳에 살던 송씨들이 경북 성주에 처음 입향한 것은 회천의 20대조 宋構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에 경기 감사를 지낸 송구가 성주의 松川(소래, 초전면 文德里)에 정착한 이래 야성 송씨들은 이웃의 高山里 등으로 분파를 이루어가며 지금까지 약 700년 동안 성주에 세거해 오고 있으며, 송홍래 역시 1876년(고종 13) 이곳 송천에서 태어났다. 현달한 가문은 아니었으나, 그의 10대조 宋時準(1588~1617)이 鄭逑에게 배우고 9대조 宋世彬(1612~1677)이 裵尙龍과 張應一에게 배운 이래 대대로 文翰과 行誼를 이어온 집안이었다.

그는 자품이 '淳眞'하고 '明敏'하여 어려서부터 月朔考講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四書五經』을 힘써 익혀 고을 선배들로부터 장차 유림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입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으나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자 뜻을 접었다. 이후 인근의 석학들을 찾아가 학문의 요결을 듣고 스스로를 탁마하였으며, 同道의 벗들과 강습을 통해 학문과 덕행을 이루어갔다.

1. 바름을 닦음[修正]: 成學과정과 그 특징

순자는, 처사는 '바름을 닦아야 한다[修正]'고 했다. 처사는 확고한 뜻을 세워 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선배들에게 나아가 배워야 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동배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본받을 스승이 있어야 하고 同道의 벗들이 있어야 한다.

회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르침을 주었던 인물로는 四未軒 張福樞(1814~1900)와 晩求 李種杞(1837~1902)가 있고, 그가 일회성 방문이나 강회, 또는 서신을 통해 가르침을 청하거나 받았던 인물로는 西山 金

興洛(1827~1899), 拓庵 金道和(1825~1912), 農山 張升澤(1838~1916), 柯山 金瀅模(1856~1930), 俛宇 郭鍾錫(1846~1919), 大溪 李承熙(1847~1916), 晦堂 張錫英(1851~1926), 艮齋 田愚(1841~1922) 등이 있다. 사제의 의리는 執贄하고 입문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회성 배알이나 서신을 통한 질의응답으로도 연원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양측이 서로 사제의 의리를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상의 인물들 가운데 송홍래와 사제의 의리가 분명한 인물은 장복추와 이종기이다.

회천이 사미헌의 문하에 들어간 정황과 시기에 대해서는 문인이자 족제인 宋鴻碩이 지은 회천의 <家狀>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갑오년(1894) 난리 때 부친이 사미헌 장 선생께서 거창의 가조로 피란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책 상자를 짊어지고 가서 가르침을 청하도록 명하였다. 선생이 부드럽게 간하기를,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자라서 실천하고자 함인데 지금은 화란이 임박하여 어버이를 떠나 멀리 유학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난이 그치자 드디어 장 선생의 거처로 書贄하여 특별한 장려와 칭찬을 받았다. 선생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자주 찾아뵙고 의심스러운 점을 질문하였다.[3]

사미헌은 동학군의 기세를 목도하고[4] 1895년 봄에 거창 가조의 당동

3)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靑馬之亂, 大人公聞四未軒張先生避地于娥林之伽祚, 命負笈請敎. 先生溫柔以諫曰, 幼而學之, 壯欲行之, 今禍亂迫朝夕, 離親遠遊, 非其日也. 及亂已, 遂書贄于張先生之僑所, 特蒙奬詡. 及先生還故里, 趨拜源源, 質疑問難"

4)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동학군의 피해는 유독 성주 지역이 혹심했다. 1894년 9월 6일에 동학군이 성주읍에 불을 질렀는데, 『국역 성산지』(이세동・정병호 역, 성주문화원 발행, 2010) 103쪽의 「총담(叢談)」조에는 "갑오년(1894)에 호남의 최복술(崔福述, 최제우)이 동학이라 자칭하며 도당들을 불러 모아 도처에서 난을 일으켜 팔도가 소란하였다. 8월에 읍내로 돌입하여 도당을 모집하니 어리석고 패악한 무리들이 서로 다투어 응모하였다. 약탈을 자행하고 부유한 백성들을 잡아들여 금전과 곡식을 토색(討索)하였는데 응하지 않으면 형벌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도피하면 처자를 잡아 욕보였다. …… 인가를 따라 불을 지르며 성북(城北)까지 이르렀는데, 이 때 광풍이 크게 일어나 잠깐 사이에 거의 1000호에 이르는 인가가 모두 불타고 남은 집이 없었다.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덮고 재가 날려 땅에 가득하였으며 육질(肉質)이 타는 누린내가 수십 리에 뻗쳐 비참한 광경을 형언할 수 없었으니, 대개 9월 초6일의 일이다."라고

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1897년 8월에 다시 김천의 수도리 내원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회천이 사미헌의 거창 처소로 書贄한 시점은 아마 1897년 8월 이전일 것이다.

'書贄'라는 말은 '以書爲贄' 혹은 '以書替贄'의 줄임말로 글로써 폐백을 삼아 제자가 되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는 특별한 글을 창작해 직접 들고 가서 바치는 일을 가리켰지만 점차 배움을 청하는 단순한 서찰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회천은 이 때 보낸 서찰에서 "물들기를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잠시라도 그치겠습니까! …… 엎드려 바라건대, 불초하다고 하여 물리치지 마시고 한마디 말씀을 멀리 내리시어 그 뜻한 바를 깨우쳐주시기를 삼가 우러러 바랍니다."[5]라고 하면서 제자 되기를 정중히 청하였다. 이에 대해 사미헌은 "보내온 글을 살펴보니, 종이에 가득한 말들이 모두 방향을 돌려 오로지 爲己之學에 힘쓰고자 하는 뜻이다. 이런 소리가 사라진 시대에 참으로 좋은 소식이기에 가상함을 이길 수가 없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뜻이 있더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인 바, 그대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힘써 노력하도록 하라."[6]라고 격려하며 제자 됨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회천은 이미 서지하기 이전인 계사년(1893) 가을에 사미헌의 본향인 칠곡의 각산으로 가서 그를 배알한 적이 있다.[7] 이때 만약 執贄

하였고,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1일조에는 "傳于趙寧九曰: 今聞星州·河東兩邑, 酷經匪擾, 星州則民家被燒, 爲六百餘戶."라고 하였으니, 대략 600~1000호의 민가가 불탄 것이다. 사미헌은 1894년 9월에 성주군 금수면 무학동의 墨坊山房으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1895년 봄에 다시 거창의 가조로 옮겼다. 이때는 이미 전봉준의 체포(1894년 12월 2일)와 처형(1895년 4월 24일)으로 봉기가 진정될 무렵이었으나 참혹한 성주의 상황을 목도하고 피난하였을 것이다.

5) 『晦川集』 권3 「書」 <上四未軒張先生>: "附藍之慕, 曷以時替. …… 伏望不以不肖而外之, 遠賜一言, 警發其所志, 千萬恭仰." 여기서 '附藍'은 후한의 魏昭가 郭泰에게 제자되기를 청하면서, "흰 실이 朱砂와 쪽풀을 가까이하여 물들고자 할 따름입니다.(欲以素絲之質, 附近朱藍耳.)"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6) 『四未軒集』 권5 「書」 <答宋順翊>: "承審滿紙縷縷, 回頭轉腦, 有向上之意. 顧此聲響, 沉寂之世, 誠好消息, 不任嘉尙. 但人之患, 有其志, 無其成矣, 賢史能免此患否? 勉旃如何."

하고 찾아갔다면 거창의 寓所로 '負笈請敎'하라고 한 부친의 명이나 난이 그친 뒤에 書贄하였다는 <가장>의 기록과 어긋나게 된다. 이 상치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면 이때의 만남은 執贄請敎가 아니라 18세 소년이 이웃 마을의 학덕 높은 80세 노학자를 문안한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글을 올려 사미헌의 문하로 들어간 회천이 제자의 자격으로 스승을 처음 배알한 것은 1898년 겨울로 보인다. 회천 본인의 말을 들어보자.

> 무술년(1898) 겨울에 수도리의 우거로 찾아뵈었다. 선생이 손뼉을 치며, "네가 晩悔公의 후손인가! 내가 일찍이 만회공께서 나의 선조 聽天 府君께 올린 만시를 읽었는데, 언어가 몹시 세밀하고 간곡한 뜻이 자세하여 서로 어울리시던 情誼를 백세토록 잊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았다. 너는 자주 왕래하여 이 첩첩산중의 외롭고 적적한 회포를 위로하도록 하라."고 하셨다.[8]

晩悔는 회천의 9대조 宋世彬의 호이고 聽天은 사미헌의 7대조 張應一의 호인데 송세빈은 장응일의 문인이다. 양가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초면의 수인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미헌이 5년 전에 18세 소년을 만났던 일을 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 書贄 이후의 첫 대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9] 회천이 제자의 자격으로 처음 문안한 1898년 겨울, 사미헌은 이미 85세의 노인이었고 2년 뒤인

---

7) 『晦川集』 권8 「言行」 <四未軒先生言行記略>: "癸巳秋, 往拜先生于覺山. 先生問讀何書, 對曰讀大學."

8) 위의 글: "戊戌冬, 謁先生于修道寓中. 先生拊手曰, 汝爲晩悔公之後裔乎! 余嘗讀晩悔公挽吾先子聽天府君之詩, 詞致縝密, 悃意綢繆, 可見其相將之誼足使百世有難忘者矣. 汝其源源往來, 庸慰此萬山中孤寂之悔也."

9) 위에 인용한 <가장>에는 사미헌이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자주 찾아뵈었다고 하였고, 『四未軒全書』의 「年譜」 戊戌年(1898)조에는, "夏避暑于正覺寺. 李種杞・張升澤・李鉉汶・盧秀五・呂軫奎・鄭載善・尹胄夏・郭鍾錫・李承熙・李鈺均・宋浚弼・李貞基・宋鴻來, 後先來候焉. 九月還故里."라 하여 3종의 기록이 모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회천 본인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1900년 4월 8일에 별세하였으므로 회천이 이후 자주 찾아갔다 하더라도 스승을 직접 모신 기간은 1년 반 정도이다.

회천이 만구 이종기의 문하에 처음 나아간 시기에 대해 <가장>과 權相圭가 지은 <行狀>에 모두 丙申年(1896)이라고 하였으나 회천 자신은 丁酉年(1897) 8월 중순이라고 하였다.[10] <가장>에는 기억의 오류가 있고 <행장>은 그 오류를 답습한 결과일 것이므로, 본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만구는 학문이 무르익은 61세의 宿儒였고 회천은 22세의 청년이었다. 회천은 이때 '학문의 요결을 들은'[11] 뒤로 만구가 세상을 떠난 1902년까지 5년 동안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간의 가르침에 대해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병신년[정유년]에 폐백을 갖추어 만구 이 선생을 찾아뵈었다. 읽은 글들을 가지고 달을 걸러 나아가 강론하였으며, 때로는 箚疑를 작성해 질정을 청하여 자세한 가르침을 받는 등 평생토록 우러러 의지할 바탕으로 삼았다.[12]

만구가 별세한 뒤에도 회천은 그를 위해 心喪 3년을 입었고, 그의 묘갈에 題字하였으며, 그의 문집인 『晩求集』의 간행과 그의 강학소인 西洛書堂의 여러 일들을 주선하는 등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사미헌과 만구를 제외하고 회천이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인물은 西山 金興洛(1827~1899)이다. 그는 퇴계학파의 주류를 형성한 金誠一의 11대 종손으로 柳致明의 제자이다. 유일로 천거되어 우부승지·영해부사 등에 제수되었으며 700여 명의 문도를 배출해 당시 학문의 연원이 바르기로 영남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던 인물이었다. <가장>에 따르면 회천은 戊戌年(1898) 3월에 그를 찾아갔다고 하는데,[13] 이 한 차례의 만

10) 『晦川集』 권7 「祭文」 <祭晩求先生文>: "赤鷄秋殷, 往執非贄, 容受盡納, 誨誘諄至." 여기서 '赤鷄'는 정유년을 뜻하고, '秋殷'은 仲秋를 말한다.
11)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丙申, 謁晩求李先生, 承聞爲學旨訣."
12) 『晦川集』 권8 「附錄」 <行狀>: "丙申, 贄謁晩求李先生. 以其所讀書, 間月進講, 亦或箚疑請質, 蒙被剖誨, 爲畢生依仰之地."
13)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戊戌, …… 進拜西山金先生, 質疑蒙批, 多有所得."

남에 대해 회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봄이 저물어가는 즈음에 찾아뵙고 端明의 절을 올린 것은 실로 십수 년 동안 우러러 사모하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옷자락을 걷고 가르침을 청할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있었으니 마치 황하의 물을 자기의 그릇만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14]

'端明의 절'은 朱子(1130~1200)가 端明殿學士를 지낸 黃中(1098~1180)에게 門人弟子의 예를 갖추어 再拜하는 것을 받아주기를 청한 일[15]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자가 비록 문인제자의 예라고 하였으나 황중과 학문 授受에 따른 연원 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래 스승에 버금가는 尊丈에 대한 예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회천은 '옷자락을 걷고[摳衣] 가르침을 청하지는 못했다'고 하여 사제의 의리가 성립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황하의 도도한 물결과 같은 서산의 국량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우러러 사모하는[景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바, 서산에 대한 회천의 특별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회천은 1905년에 유치명의 문인이자 안동 의병장으로 유명한 金道和를 찾아가 질의하였고, 1906년에는 동문의 대선배인 張升澤이 晴川書堂에서 개최한 강회에 참석해 『朱子語類』를 강론하였으며, 1909년에는 서산의 理學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金濚模를 鳳岡書堂에서 만나 心性理氣說을 토론하여 그의 인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寒洲 李震相(1818~1886)의 빼어난 제자들인 郭鍾錫(1846~1919)·李承熙(1847~1916)·張錫英(1851~1926) 등에게도 극진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올려[上] 가르침을 청하였다.

---

14) 『晦川集』 권3 「書」 <上西山金先生>: "春暮, 端明之拜, 固十數年景仰中出來. 而縱不能摳衣請敎, 得於觀感, 則有若飮河充量者矣."

15) 『晦庵集』 권37 <上黃端明>: "八月十一日, 具位熹, 敢齋沐裁書, 請納再拜之禮於致政尙書端明文丈台座. …… 伏惟明公, 坐而受之, 使得自進於門人弟子之列, 而不孤其所以來之意, 則熹之幸也."

늦가을에 제가 찾아간 것은 실로 30년 동안 높이 우러르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공교롭게도 마침 御者[곽종석]께서 진주에 머무르고 계시어 평소에 마치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며 사모하던 정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한가로운 여가에 지난날 의심스러웠던 몇 조목을 골라 별지에 적어 보내오니 가르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16)

御者[이승희]께서 왕림하시는 영광을 입어 초라한 집에 광휘를 더하였으니 감동스럽기 그지없습니다. …… 이 마음을 경계하여 힘쓰고자 하면 문득 조급해 하는 병통이 생기고 조금 여유롭게 하고자 하면 덧없이 세월만 보내어 실질이 없는 병통이 있게 됩니다. 만약 용광로를 가까이하여 한 번 녹여 변화시킨다면 아마도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할 것이니, 엎드려 청하건대 때때로 정수리에 침을 놓아 이 병통들을 되돌려 바로잡아주신다면 어찌 타인을 이루어주는[成物] 도리가 아니겠습니까.17)

50년을 높이 우러른 것이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한 통 편지로 箚問하는 일이 이처럼 늦었으니 이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독실치 못하고 어진이를 섬기는 정성이 지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어찌 道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의리라고 하겠습니까! …… 엎드려 바라건대 썩은 바탕에는 조각할 수 없다하여 버리지 마시고, 때때로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내리시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어찌 재목을 만드는[成材] 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18)

회천의 成學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인물은 艮齋 田愚(1841~1922)이다. 전우는 李珥와 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당대 노론 계열 학자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회천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與].

16) 『晦川集』 권3 「書」 <上俛宇郭公>: "賓秋造門, 亶出於三十年宗仰之心, 而巧値御者之盤薄晉陽, 未獲遂平日不克見之誠. …… 伴奐之暇, 采其所嘗疑晦者若干條, 錄在異幅, 冀欲賜誨焉."

17) 『晦川集』 권3 「書」 <上大溪李公>: "伏蒙御者之辱臨, 使篳門增輝, 感服良多. …… 此心纔欲惕勵, 則便有躁迫底患, 纔欲舒緩, 則又有悠泛不實底患. 若親近大爐韛, 一經點化, 則庶免暴棄了人也. 伏乞時賜頂針, 使拔轉此機栝, 豈非成物之道乎."

18) 『晦川集』 권3 「書」 <上晦堂張公>: "五十年宗仰, 不爲不久, 而一尺書箚問, 若是乃遲, 是好學之心未篤, 而事賢之誠未至也, 惡足謂就有道之義也哉! …… 伏望不以朽質之不可雕而棄之, 時垂規矩之至誨, 俾有以自立, 則豈非成材之大道乎!"

> 鴻來가 삼가 짧은 편지를 엮어 간재 文丈의 道座에 端明의 절을 대신합니다. 제가 읽은 공자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의 현명한 대부를 섬기고 이곳의 어진 선비를 사귀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와 선비라는 이름을 얻은 것만으로도 이미 무거운데 특히 현명한 자를 섬기고 어진이를 사귀라고 하신 것은 총총히 나아가 떠받들고 바라보며 모시는 영광을 얻으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젖어들고 노력하여 현명하고 어진 실질을 본받아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文丈께서는 덕업과 학술이 실로 이 시대에 온 나라를 대표할만한 어질고 현명한 분이시니, 원근의 덕을 아는 모든 선비들이 풍도를 사모하여 의귀할 곳으로 삼지 않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어리석은 저만 유독 빈객의 뒷자리를 따르며 대군자의 강건하고 독실한 남은 광채를 바라보지 못했으니 이 어찌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의 현자를 섬기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 엎드려 바라건대 경솔하고 참람함을 죄 삼지 마시고 한 통의 지극한 말씀[至言]을 내려 바른 도리를 얻을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면 저의 행운이겠습니다.[19]

회천은 여기서도 주자가 황중에게 하였던 '端明의 절'을 언급하고 있고, 주자가 황중에게 사용한 '文丈'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덕업과 학술을 언급하며 '이 시대에 온 나라를 대표할만한 어질고 현명한 분'이라고 하였으니, 비록 회천이 그의 문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남인 계열 학자로서는 드문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편지를 '보낸다[與]'라고 하여 남인 학맥의 선배들에게 '올린다[上]'라고 한 표현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문집의 초고를 정리한 후학들의 의지일 뿐 회천의 본의는 아닐 것이다.

이상 회천이 가르침을 청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회천은 학문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학파나 색목을 구분하지 않고 배우고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미헌의 문인과 서산의 문인은 겹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

19) 『晦川集』 권3 「書」 <與艮齋田公>: "鴻來謹修咫尺之書, 替獻端明之拜于艮齋文丈道座. 鴻來嘗讀夫子之言, 有曰居是邦也 事其大夫之賢者 友其士之仁者. 夫大夫士之得名, 固已重矣, 而特以爲賢者事之, 仁者友之云者, 非謂其屑屑焉趨赴承望, 以取其得御之光寵而已. 蓋欲使學者, 薰陶切磋, 師法其所以仁賢之實, 而有以跂及之也. 恭惟文丈之德業學術, 當今一國之仁賢者, 而凡遠近知德之士, 所以莫不竊慕下風, 以爲依歸之地, 而鴻來之愚, 獨不得一從賓客之後, 以望大君子剛健篤實之餘光, 是豈居是邦, 事其賢之道哉! …… 伏望不以狂僭爲罪, 寵賜一副至言, 知所以得其正焉, 則鴻來之幸也."

이상할 것이 없고, 心卽理를 주장하여 사미헌의 성리학 이론과 일정정도 갈등 관계에 있던 한주의 문인들에게 질의하고 '成物成材'를 청한 것도 같은 鄕內의 일이니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노론 학맥의 擔持者였던 간재에게까지 간절하게 '至言'을 구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별해 보인다. 이런 상황들은 전적으로 회천의 독실한 향학열 때문일 것이다. 그는 학문이 있는 곳이면 세간의 이목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나아가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배움을 갈구하던 회천이지만 그의 열정과는 달리 교제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장>에는 회천과 함께 유림의 일을 의논하며 서로 觀善하고 質正하던 벗으로 張命相(1865~1937)・李基馨(1868~1946)・宋浚弼(1869~1943)・李貞基(1872~1945)・張相學(1872~1940)・李墩永(1873~1957)・張相貞(1873~1937)・宋鴻訥(1878~1944) 등 8명을 들고 있는데,[20] 이들은 모두 사미헌 장복추의 문인들이다. 2006년에 최종 정리된 사미헌급문록을 분석한 연구[21]에 따르면, 747명의 사미헌 문인 가운데 후손들의 거주지가 밝혀져 있는 사람은 602명이다. 이들 중 사미헌의 거주지인 칠곡을 중심으로 핵심지역인 성주・칠곡・인동 출신의 문인이 287명으로 48%를 차지하고, 핵심지역을 둘러싼 부심지역인 거창・합천・금릉(김천)・창녕・선산・대구・고령의 문인이 193명 32%로 사미헌의 거주지 인근 지역의 문인들만 도합 480명(80%)이다. 영남의 학문 권역을 대체로 안동권・상주권・성주권・경주권・진주권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은 모두 성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타 상주권・경주권・진주권의 문인은 극히 적고 특히 안동권은 1명도 없다. 이는 사미헌의 영향력이 영남 지역 전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성주권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與張見山命相・李惺窩基馨・宋恭山・李濟西貞基・張華岡相學・李立巖墩永・張怡齋相貞(1873~1937)・宋仰山鴻訥諸公, 沙門有事, 必相合席, 相觀以善, 相質以正."

21) 우인수, 「사미헌 장복추의 문인록과 문인집단 분석」, 『어문론총』 47, 2007, 83쪽 참조. 본 논문에서 기초자료는 우인수의 논문에 의거하되 분석은 필자의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회천의 교유범위가 사미헌 문도에 그치고 있는 점은 그의 행동반경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가 선배학자들에게 배움을 청할 때는 색목조차 따지지 않았지만 동배와의 교유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그의 사상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덕을 길러 시대에 순응함[德盛/能靜]: 교육자의 길

순자는 처사의 조건으로 德盛과 能靜을 들고 있다. 당나라 학자 楊倞은 能靜을 "시대에 순응하여 처신함을 말한다."[22]라고 하였으니, 두 조건을 종합하면 성대한 덕을 길러 시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선비가 스승에게 배워 덕과 학문을 쌓고 동배들과 어울리며 배운 것을 심화하는 것은 세상을 경륜하고자 함이니, 修己하고 난 뒤에 治人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양을 갖추었더라도 시대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경륜을 펼칠 수 없으므로, 치인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의 끝자락에 태어나 19살에 과거제가 폐지되는 상황을 목도한 회천 역시 시대에 순응하여 제자를 기르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통치가 조선의 가치를 부정하고, 서양의 新學問이 父祖 전래의 유학을 대체해가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처사로서 유학의 마지막 자락을 부여잡고 스승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기에 회천의 교육자적 행로는 더욱 빛이 난다. 학문적 소양과 도덕적 실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회천이 세상을 떠난 뒤, 이승희의 사위이자 장석영의 아들인 張右遠(1875~1955)은 그를 위해 묘지명을 지었다.

> 道가 자신에게 있다면, 덕행이 근본이고 문예가 다음이다. 먼저 덕행을 닦은 뒤라야 자신을 다스려 천명에 순응하고 미루어 타인에게 베풀 수 있으며, 文詞가 아

22) 楊倞, 『荀子注』: "能靜謂安時處順也."

> 니라면 또한 다듬은 언어로 도를 표현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진 선비가 나타나면 사랑과 공경을 다하고, 죽은 뒤에도 높이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무덤 속에 들어간 뒤에는 더욱 정성을 다해 받들고 보호하여, 희생을 올리는 예법이 빛나고 바치는 제수가 정결하며, 나무하고 소치는 일을 금해 가래나무와 잣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니, 풍수가들이 말하는 다섯 가지 환난을 피할 명당이 아니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哲人의 묘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장과 덕행이 함께 아름다워 병칭되는 것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었는데, 근래에 돌아가신 회천 송공은 문장과 덕행으로 우리 지역의 선비들이 推重하는 바이니, 아마도 이런 경지에 가까이 간 분일 것이다![23]

장우원은 회천이 덕행을 닦아[修其德行] 자신을 다스리고 천명에 순응하였다[治身立命]고 하였으니 순자가 말한 德盛과 能靜이다. 文詞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하였으니 문장이 뛰어났다는 말이며 교육자의 길을 갔다는 말이다. 이어서 사랑하고 공경할만한 어진 선비[賢士]라고 하였고, 죽은 뒤에 정성을 다해 받들어야 할 哲人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천의 문장과 덕행이 모두 아름다워 옛 사람의 경지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 단락을 끝맺었다. 이렇게 덕행과 문장으로 후진을 양성하던 회천의 모습이 <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어버이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 (세상일을) 경영함이 없었고, 오직 몸을 닦아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후학을 장려하여 진보시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 이에 믿고 따르는 士友들이 더욱 불어나서 學舍에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옛날에 거처하던 초당이 비가 새고 무너져 고치려 할 즈음에 諸生들이 선생의 뜻보다 앞서 힘을 내어 건축하자 선생께서 막을 수가 없었다. 크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았으며, 澗松과 園竹 사이에 몸을 들여놓기 알맞을 뿐이었다. 집이 완공되자 忠信堂이란 편액을 걸었다. …… 숙소의 이름을 觀書寮라고 하여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學規를 세우고 과업을 정해 강습이 끊어지지 않았다.[24]

---

23) 『晦川集』 권8 「附錄」 <墓誌銘>: "道之在身, 德行爲本, 文藝次也. 先修其德行, 然後有可以治身立命, 推施諸人; 非文詞, 又不得以修辭載道, 啓發愚蒙, 所以賢士之生, 而致愛敬, 沒而思尊衛. 至於玄窞之幽藏, 猶且誠心扶護, 貢牲儀而潔粢盛, 禁樵牧而助楸柏, 不待堪輿五患之說, 而使後之人瞭然知爲哲人之斧堂. 文與行之兼美而幷稱, 古亦鮮矣, 近故晦川宋公, 以文行爲吾省士類所推重, 其近之歟!"

이 글에 따르면, 회천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로부터 오직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冶城宋氏晩晦公派譜』에 의하면 회천의 부친 宋寅鑄와 모친 竹山朴氏는 각각 1910년 8월과 1912년 2월에 작고한 바, 회천은 대체로 30대 중반이던 191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30년 이상 후진을 양성했다.

1910년의 경술국치는 유학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고, 이 파국적 상황에서 조선을 지탱해 온 유림들은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뛰어든 선비들도 있었고, 일제를 외면하며 은거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선비들도 있었으며, 師道를 지키며 후진을 양성하는 선비들도 있었고, 친일하며 영달을 꾀하던 유림들도 있었다. 회천은 물론 세 번째의 경우이지만, 조선이 망하던 1910년대 초부터 일제 통치 全期間 에 걸쳐 유학을 가르치며 조선의 一脈을 지켜나간 점은 일정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시는, 성균관과 향교 중심의 공교육이 갑오경장으로 폐지되고 서원과 서당의 사교육 역시 일본식 근대 교육으로 대체되어 가던 시기였다. 경전에 기반한 유학적 교육이나 학통의 수수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던 이 시기에, 忠信堂을 새로 세울 정도로 제자들이 모였던 것은 회천의 학문과 덕행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회천의 문인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문인들끼리 崇義稧라는 모임을 만들어 학업과 친목을 도모하고 계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계첩이 분실되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1978년에 생존 문인들과 문인 후손들을 중심으로 계회를 복원하고 작성한 『崇義稧續案』[25]이 남아

24)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自親沒後, 益無營爲, 惟以修身自靖, 奬進後學爲己任. …… 於是士友之信從者益衆, 學舍不能容, 且舊居草堂滲漏傾圮, 方欲改修, 諸生先意出力以營之. 先生不能禁命. 無宏無侈, 而就澗松園竹之間, 適於容膝而已. 屋旣成, 顔其堂曰忠信. …… 寮曰觀書, 俾處來學, 立規定課, 講習無間斷."

25) 『崇義稧續案』은 회천의 從玄孫 송용섭 씨가 소장하고 있는데, 필사본이며 표지에 '戊午十一月 日'이라는 작성시기가 적혀 있다. 序文과 489명의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사망한 문인들은 좌목에 빠져있어 문인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좌목에는 자와 생년, 관향,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체나 생년으로 보아 한꺼번에

있는 바, 李相達이 쓴 <崇義契帖續案序>의 한 단락을 인용한다.

> 송천의 충신당에 은거하며 가르침을 베풀자 원근에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집이 좁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함께 금전을 추렴하고 서명하여 계첩을 한 권 만들고 崇義契라고 이름한 뒤, 해마다 한 번 모여 선생의 도를 강론하고 선생의 덕에 감복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시고부터 세상 일이 또 크게 변하여 揖讓絃誦하던 곳에 묵은 자취만 남게 되었으니, 이 모임을 폐하고 거행되지 못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다. 급문 제공들이 이를 걱정하고 탄식하며 모두 말하기를, "이 충신당이 황폐해져서는 안 되고 이 계회도 버려둘 수 없다." 하였다. 이에 각자 의로운 성금을 내어 백여만 원을 수합해 유신할 계책을 도모하게 되었다. 고을과 도내의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못 소문을 듣고 찬조하였으니 선생의 덕과 의로움이 사람에게 깊이 스며들었음을 볼 수 있거니와 제공들의 보답하려는 정성 또한 감동스럽다.[26]

이 서문에는 교육자로서의 회천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2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회천 문도들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원래 충신당은 문도들이 경비를 갹출해서 교육의 장소로 새로 지은 집이다. 그런데 그 충신당조차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려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재 『崇義稧續案』에는 489명의 좌목이 실려 있는데, <서문>에서도 밝힌 바처럼 문인의 후손들과 숭의계의 취지에 단순 찬동한 사람들도 실려 있어 모두가 문인인 것은 아니다. 『冶城宋氏晩晦公派譜』에 따르면, 회천의 장례는 士林이 禮葬으로 거행했으며 이때 "문인으로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다[門人受服者百餘人]"라고 하였으니 문인의 규모는 적어도 100명 이상일 것이다. 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여러 차례 添錄한 것으로 보인다.

26) <崇義契帖續案序>: "隱居敎授於松川之忠信堂, 遠近學者, 翕然從之, 舍不能容. 相與醵金署名, 作爲一帖, 名之曰崇義. 每歲一聚會, 講先生之道, 而服先生之德, 一自山頹以後, 世事又大變, 揖讓絃誦之場空留鐵鑪陳迹, 玆會之廢而不擧, 已數十年所矣. 及門諸公, 惟是憂嘆, 咸曰, 斯堂不可蕪沒也已, 斯契不可廢置也已, 乃各自義捐誠金, 收合百有萬緡, 以圖惟新之責. 鄕省好懿之人, 亦多聞風贊助, 此可見先生德義之入人深, 而亦可感諸公報佛之誠也."

웠다 하더라도 장례 때 불참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하더라도 모두 상복을 입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족보의 기록에 과장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고려해 볼 문제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실들에 비추어 근거 없는 기록은 아닐 것이다.

둘째, 위의 서문에서 "선생의 덕과 의로움이 사람에게 깊이 스며들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후세에까지 끼친 회천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도들이 갹출해서 충신당을 건립한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사라졌던 '崇義稧'가 1978년에 복원된 점과 그 좌목에 489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점도 특별해 보인다. 197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먼 시대가 아니다. 거의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30년 전에 작고한 선비 한 사람을 위해 기왕에 사라진 계를 다시 모은다는 것이 쉽게 상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인이나 문인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까지 그를 기리며 거의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명하고 성금을 내고 있으니 특별한 일임이 분명하다. 이는 회천의 처사적 실천과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3. 천명을 알고 올바른 도리를 드러냄[知命/著是]: 巴里長書 서명

순자는 처사의 마지막 덕목으로 '知命'과 '著是'를 들었다. 楊倞은 著是를 "그 시대의 올바른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사특함에 의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27]이라고 했다. 종사가 무너진 시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知命일 터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著是일 터이니, 파리장서에 서명한 회천의 경우 역시 망국의 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한 것일 터이다. 1919년에 영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유림인사 137명이 서명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2674자의 독립청원서를 파리장서라고 하는데, 회천은 여기에 서명하

27) 楊倞, 『荀子注』: "明著其時是之事, 不使人疑其姦詐也."

였다. 제1차 유림단사건이라고도 하는 파리장서운동은 1960대부터 연구가 축적되어 운동의 배경과 경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28] 여기서는 별도의 언급을 생략한다. 이 일과 관련하여 <가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종사가 망한 이래로 망국의 아픔이 통절하여 敵愾의 뜻이 종종 시구에 드러났다. 기미년(1919)에 이르러 곽면우・장회당 및 국내의 유림들이 연명한 글을 만국공관에 보내 庚戌脅約이 허위임을 변론하였는데 선생도 실로 여기에 참여했다. 日虜들의 수색과 추포로 장차의 화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친족과 문생들이 잠시 피하시라고 권유했다. 선생이 정색하고 말씀하기를, "우리 儒者들이 지킬 것은 오직 '義'뿐이다. 어찌 화와 복에 따라 좌우되겠는가!"라고 하셨다. 마침내 몇 달 동안 수감되었다가 돌아오셨다.[29]

일제의 통치 하에서, 더구나 삼일운동으로 일제가 긴장하고 있던 즈음에 전 세계를 향해 독립을 청원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오늘날의 시국선언 정도가 아니다. <가장>의 언급처럼 '장차의 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내하기 힘든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었다. 어쩌면 목숨을 담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金昌淑이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서명을 거부하던 유림이 부지기수였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천은 136명의 동지들과 함께 서명하여 의로움을 지켰고, 문인들은 그 의로움을 숭상하여 崇義稧를 만든 것이다. 회천은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고, 1919년 7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8) 최근의 연구로는 정우락이 장석영의 『黑山日錄』을 번역하고 해제한 『국역 흑산일록』(경북대학교출판부, 2019)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권영배의 「파리장서운동과 성주유림」(大丘史學 137, 2019)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비교적 상세하다.

29) 『晦川集』 권8 「附錄」 <家狀>: "自屋社以來, 痛念國亡, 敵愾之意, 往往發於詩句. 及至己未, 郭俛宇・張晦堂及國內儒紳, 連書抵萬國公館, 辨庚戌脅約之誣, 而先生實與焉. 日虜搜捕, 禍將叵測, 親族及門生, 權以少避, 先生正色曰, 吾儒所執, 惟義而已. 豈可以禍福而左右哉! 竟滯拘積月而還."

을 선고받았다. 1995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회천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옥 이후 회천은 충신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만년을 보내다가 두 아들을 잃은 뒤 김천의 鏡湖川邊으로 이거하여 몇 년을 보낸다. 1947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사를 정리하고 이듬해 1948년 2월 8일에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유림의 禮葬으로 거행되었으며, 지금도 及門家의 후손들은 10여 년 전에 중건된 忠信堂에 모여 격년으로 釋菜禮를 거행하고 있다.

Ⅲ. 송홍래의 성리사상

선비는 학문과 덕행을 본령으로 한다. 조선후기의 선비들은 그 학문의 주요 내용으로 理學·禮學·譜學의 三學을 중시하였고, 특히 理學에 대한 견해를 문집으로 남기지 않으면 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30] 회천의 경우, 성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은 없지만 문집에 남아 있는 글들 가운데 그의 견해를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은 바, 대략의 견해는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평생 교유의 범위가 주로 사미헌 문도들에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그의 사상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실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회천의 성리사상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인물은 그의 스승들인 사미헌 장복추와 만구 이종기이고, 이와 관련하여 함께 살펴볼 인물은 한주 이진상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퇴계의 理氣互發說과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로부터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분기하게 되었다. 퇴계는 四端과 七情을 각각 理發氣隨와 氣發理乘으로 간주해 理의 능동성을 인정하였고, 율곡은 주자의 理無爲說에 근거하여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로부터 발한다고 하

30) 필자는 30여 년 전에 恭山 宋浚弼(1869~1943)의 만년 제자였던 蒼巖 李埰鎭(1918~1997) 翁으로부터 소위 三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학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文集의 출간여부와 그 문집에 理學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의 여부인 듯했다.

여 기의 능동성을 주장하였다. 퇴계의 互發說은 리와 기의 不雜性을 토대로 양자를 나누어 횡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分開說 또는 橫說이라고 하고, 율곡의 氣發一途說은 不離性을 토대로 양자를 통합해 종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渾淪說 또는 竪說이라고 한다.

퇴계학파는 17세기 이후 호발설을 학파의 종지로 삼아 호교적 차원에서 견지해 온 바, "리와 기는 결단코 두 가지"[31]라고 주장하며 호발설에 대한 율곡의 비판을 재비판한 葛菴 李玄逸(1627~1704)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旅軒 張顯光(1554~1637)은 퇴계와 달리 사단과 칠정을 모두 理發이라고 함으로써[32] 갈암 등 퇴계학파로부터 비판을 받아 영남 학계의 주류 집단에서 소외되었고, 갈암의 외증손인 大山 李象靖(1711~1781)은 不離에 기반한 혼륜설과 不雜에 기반한 분개설을 동시에 비판하고[33] 분개와 혼륜의 양면을 함께 보아야 함을 주장해 퇴계와 결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대산은 분개와 혼륜을 함께 인정하되, 결론적으로는 리는 동정의 妙로써 주체가 되고 기는 동정의 틀로써 도구가 된다는 理主氣資說[34]을 통해 氣發을 부정[35]하고 理發을 입론함으로써 퇴계학파의 일원으로 돌아와 주리론을 강화해 나갔다.

여헌과 대산의 理發說은 한주의 心卽理에 이르러 理發一路[36]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원래 사단칠정으로부터 출발한 호발설과 기발일도설

31) 『葛菴集』 권18 <讀金天休論李大柔理氣性情圖說辨>: "理氣雖不可謂相離, 然以形而上下者言之, 理與氣決是二物."

32) 『旅軒性理說』 권4 <歷引經傳>: "合而言之, 四端七情, 皆理之發也. 何則, 七情爲性之用也."

33) 『大山集』 권6 <答權淸臺相一>: "近世爲理氣之說者, 其主於不相離, 則殆認理爲枯槁死物, 凡動靜闔闢, 皆氣機之自爾, 固失之遠矣. 而病其爲此, 則又若以理爲與氣相對, 而各自發用, 恐是矯枉過直, 是亦枉而已矣."

34) 『大山集』 권7 <重答李仲久別紙>: "蓋聞理者所主以動靜之妙也, 氣者所資以動靜之機也."

35) 『大山集』 권40 「雜著」 <讀聖學輯要>: "蓋理則只是一理, 在人所見如何耳. 今就太極動而生陽處, 何得謂發之者氣也?"

36) 『寒洲集』 권16 「書」 <答李器汝>: "蓋四七皆情也, 不自性發, 不名爲情. 性則理也, 其實則只有理發一路."

은 心性論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氣發에 근거한 율곡학파는 心是氣(心卽氣)를 주장하였고 互發에 기반한 퇴계학파는 心合理氣(心兼理氣)를 주장하였는데, 寒洲는 理發에서 입론한 心卽理를 주장하여 理의 主宰性을 극도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주자를 祖述하고 퇴계를 憲章한다는 '祖雲憲陶'의 기치를 내걸고 입론한 한주의 학설은 도리어 영남 북부의 퇴계학파로부터 배척당하고 문집이 불태워지는 혹독한 참화를 겪었다.

사미헌은 기본적으로 퇴계학파의 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旅軒의 8대손으로서 소외된 선조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이와 함께 大山 계통의 퇴계학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여헌의 학문을 퇴계학의 전통 속에서 복권시키고자 하였다. 그가 여헌과 대산의 학설을 하나로 연결시켜 퇴계학의 전통 속에 살리고자 했던 것은, 퇴계설의 특징인 분개설을 견지하면서도 율곡설의 특징인 혼륜설을 절충해 종합하려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7] 그러나 그 역시 율곡학파의 기발을 포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선조인 여헌이나 대산처럼 理發에 가까운 입장에 서있는데[38] 한주의 理發一路를 불편해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심즉리설에 대한 그의 말을 들어보자.

> 心卽理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朱子가 '心은 性에 비하면 조금 자취가 있는 편이고, 氣에 비하면 자연스러우며 신령한 것이다.'라고 했고, 퇴계는 '心을 말한 것은 모두 理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했으니, 만약 心卽理라고 한다면 불교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과 王陽明의 '良知를 지극하게 이룬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39]

사미헌은 한주의 견해를 영남 북부의 퇴계학파 사람들이 말하곤 하듯

37) 崔英成, 「朝鮮儒學史에서의 四未軒 張福樞의 位相」, 『어문론총』 47, 2007, 100쪽.

38) 『四未軒集』 권5 <答再從姪錫英>: "四端七情, 皆情也. 而性發爲情, 則七情豈是性外之物, 物亦豈非發於理者乎. 然而對四端言, 則四端是理之乘是氣而直遂者也, 七情是氣之載是理而用事者也. 各因其所主而發, 而有理發氣發之分."

39) 『四未軒全書』 下 「附錄」 권2 <行狀>(張相學 撰): "有曰心卽理, 則曰, 朱子曰, '心比性微有迹, 比氣自然又靈.' 退陶曰, '凡言心者, 皆兼理氣也.' 若曰心卽理, 則無或近於佛氏之卽心是佛・王氏之致良知乎."

이 불교나 양명의 이론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미헌은 이웃 마을에 살면서 한주와 빈번하게 교류하던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한주의 심즉리가 양명의 심즉리와 다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이처럼 범범하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주의 이론이 비록 리의 주재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퇴계학파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心合理氣'와 外皮가 다른 까닭으로 이단으로 배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동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율곡학파의 氣發說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퇴계와 율곡의 학설을 절충하려는 그의 입장에서는 율곡학파를 부정하는 한주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心合理氣를 기조로 삼고 心說 논쟁에 참여하기를 꺼렸던[40]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한주가 세상을 떠난 뒤 心卽理說을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한 아래의 말이 아마 사미헌의 본심일 것이다.

> 작고한 벗이 살아 있을 때 논의를 하나로 귀착시키지 못한 것을 나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치는 극히 깊고 오묘한 것이니, 그렇고 그렇지 않은 까닭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오직 나의 견해를 지키면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41]

만구 이종기는 기본적으로 퇴계의 理氣互發說과 心合理氣說의 입장을 성리학 이해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理發·氣發만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42] 따라서 그는 理發의 기조에서 氣發도 인정하는 사미헌의 입장에 가깝고, 한주의 理發一路에 기반한 心卽理說에는 찬동하지 않았다. 만구의 이러한 입장을 회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40) 『四未軒集』 권3 <答李致猷>: "俯示心卽氣·心卽理·心兼理氣三說, 到今千岐萬途, 果如來諭. 如福迷劣, 何敢容喙於其間耶. 雖然, 朱退旣以合理氣爲言, 則後生晩學, 恐不若從是訓之爲得, 未知如何."

41) 『四未軒全書』 下 「附錄」 권2 <行狀>(張相學 撰): "亡友在時, 不得歸一, 吾亦恨之. 然此義也, 極窅妙, 惡識其所以然, 惡識其所以不然. 只宜守吾所見, 以俟到頭看如何."

42)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삶과 사상적 특징」, 『南溟學硏究』 31, 2011, 132쪽.

> 선생이 심을 논할 때는 반드시 리와 기를 들고 합하여 말씀하였다. 일찍이 하나를 폐하여 치우치게 말씀한 적이 없다.[43]

사미헌과 만구 두 스승의 문하에서 배운 회천은 心性理氣에 대한 언급에 신중하였고[44] 언급하더라도 세밀한 문제를 정밀하게 깊이 따지지 않았다. 다만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두 스승의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인 心合理氣를 수용하면서 한주의 심즉리를 완곡하게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음의 몇 단락을 살펴보자.

> ① 심은 합리기의 物事이다. 그러므로 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합리기로 보는 것이야말로 자빠뜨리고 때려도 부술 수 없는 확고한 이론이다.[45]
>
> ② 사람이 태어날 때 천지의 理氣를 얻어 心으로 삼는데 심의 리는 性이다.[46]
>
> ③ 대저 心을 혼륜으로 말한다면 성이 그 가운데 있어 待對할 것이 없으니 合理氣라고 해도 괜찮고, 만약 분개로 말한다면 성은 리이고 심은 기라고 해도 역시 괜찮다.[47]
>
> ④ 심은 참으로 리를 겸하고 있다. 그러나 그 精爽을 들어 말한다면 기이니 리라고 하지 않는다. 성 또한 기를 겸하고 있지만 그 근본을 따져 말한다면 리이니 기라고 하지 않는다.[48]

---

43) 『晦川集』 권8 「言行」 <晩求先生言行記略>: "先生論心, 必擧理與氣, 而合言之. 未嘗廢一而偏論也."
44) 『晦川集』 권5 「雜著」 <述言>: "心也性也理也氣也, 可與知者道, 不可與不知者道也."
45) 『晦川集』 권4 「書」 <答李道三漢鎭>: "心是合理氣底物事, 固或以理言, 或以氣言. 然合理氣看, 爲顚撲不破."
46) 『晦川集』 권5 「雜著」 <述言>: "夫人之生也, 得天地之理氣以爲心, 心之理乃性也."
47) 위의 글: "夫心渾淪言之, 則性在其中, 而無可待, 固可曰合理氣. 若分開言之, 則性曰理・心曰氣亦可也."
48) 위의 글: "心固是兼理, 然擧其精而言則氣也, 不謂之理也. 性亦是兼氣, 然原其本而言則理也, 不謂之氣也."

①은 자신이 퇴계의 정론인 심합리기의 입장에 서 있음을 밝힌 말이고, ②는 심합리기의 입장에서 性卽理의 유구한 종지를 들어 심즉리를 부정한 말이다. 한주의 심즉리는 심이 곧 리라고 하였지만, 회천은 미발의 상태인 성만 리인 것을 강조하였으니 누구나 알고 있는 성리학의 기본 명제로 심즉리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주의 심즉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다. 한주가 성즉리의 불변적 명제를 몰라서 심즉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주가 심이 바로 리라고 한 것은 마음이 몸의 주인이듯이 리가 바로 마음의 주인이라는 리의 主宰性을 강조한 것이다. 회천의 입론과는 논의의 층차가 다른 것이다. ③과 ④는 심합리기의 입장에서 율곡학파의 심즉기까지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그의 스승 사미헌의 절충적 견해와 일치한다.

회천이 한주의 견해를 거부하고 스승의 견해를 따르는 입장은 明德에 대한 이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주는 '德'은 바로 理이며 '明'은 이 理의 실상을 형용한 말[49]로 보고, 心의 '貌象'은 비록 理氣를 합한 것이지만 "心이 소중한 까닭은 理를 갖춤으로써 三才에 참여하고 萬化를 만들어 내어 一身의 주재가 되기 때문"[50]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사미헌은 "명덕을 전적으로 理라고만 한다든가 氣라고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반드시 理氣가 합해져야 저절로 광명이 생기게 되니 여러 선생들의 말씀이 모두 그러하다."[51]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그가 퇴계의 定說인 심합리기를 따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52] 회천이 明德을 "心性理氣의 總名"이라고 말하거나, 주자가 명덕을 해설한 '虛靈不昧'를 "리기를 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53] 역시 사미헌과 결이 같은

49) 『寒洲集』 권32 「雜著」 <明德說>: "德卽是理. 此理對惡而言則謂之善, 對濁而言則謂之淸, 對昏而言則謂之明, 明者狀其德之體段."
50) 위의 글: "所貴乎心者, 以其所具之理, 參三才, 出萬化, 爲一身之主宰也."
51) 『四未軒集』 권5 「書」 <答李致三炳台>: "以明德, 專謂之理, 專謂之氣, 可乎. 必理氣合而自然生光明, 諸先生說皆然."
52) 권상우, 「19세기 嶺南退溪學의 定說과 創新의 二重奏」, 『儒敎思想硏究』 43, 2011, 68쪽.
53) 『晦川集』 권4 「書」 <答柳種河>: "(問): 明明德是理歟氣歟? (答): 明明德是心性理氣

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회천은 심합리기를 받아들여 만구처럼 퇴계학파의 정통적 위치에 서려 하였고, 동시에 율곡학파의 입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미헌의 견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한주의 심즉리에 대한 견해를 직접 언명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 점 역시 스승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Ⅳ. 맺음말

송홍래가 살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식민지가 되는 변혁의 격동기였다. 본 논문은 이 격동기에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나 일본의 신민이기를 거부하고 조선의 처사로 남기를 원했던 한 선비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글이다. 일본의 신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시대 이 땅의 보편적인 정서였지만, 누구나 다 처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처사는 올바름을 닦고 덕을 길러 시대가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송홍래는 분명 처사였다.

그는 올바름을 닦기 위해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스승들을 찾아다님에 있어 학파와 색목을 구분하지 않았다. 장복추와 이종기는 執贄를 통해 맺어진 그의 훌륭한 스승들이었으며, 김흥락과 김도화, 장승택과 김형모, 한주학파의 곽종석과 이승희와 장석영, 기호학파의 전우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명망가들이 모두 그의 집지하지 않은 스승들이었다.

그는 이 스승들에게 배워 덕을 기르고 학문을 익혀, 스스로 또 다른 스승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은 이 새로운 스승의 학문과 덕행에 감동해, 자원하여 學舍를 세우고 계를 만들어 사모하였으며, 그의 장례 때에는 100여 명이 제자로서의 상복을 입었다. 그 제자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之總名. (問): 虛靈只是理也. 此便是明德? (答): 虛靈不昧是兼理氣底."

學舍인 忠信堂에 모여 釋菜禮를 거행하며 회천의 학덕을 기리고 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길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유학의 맥을 면면히 이어온 조선의 선비로서 세계만방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목숨을 담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올바름[義]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136명의 동지들과 함께 조선 유림의 대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처사인 것이다.

그는 성리학자라고 할 만한 전문적인 글들을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학술의 근간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다. 퇴계의 학설을 종지로 삼고 기호학파의 학설을 절충하려 했던 스승들의 견해를 지지하고 따랐다. 퇴계학파의 일원임을 분명히 하면서, 스승의 학설을 묵수했다고 할 것이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하여 영남 일원에 유묵이 많이 남아 있고, 시문에도 뛰어나 風雅의 맛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楊倞, 『荀子注』, 『四庫全書』 db.
朱熹, 『晦庵集』, 『四庫全書』 db.
張顯光, 『旅軒性理說』, 『旅軒先生全書』 수록 영인본.
李玄逸, 『葛菴集』, 한국고전종합 db.
李象靖, 『大山集』, 한국고전종합 db.
張福樞, 『四未軒集』, 한국고전종합 db.
張福樞, 『四未軒全書』, 영인본.
李震相, 『寒洲集』, 한국고전종합 db.
宋鴻來, 『晦川集』, 석인본.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db.
『崇義稧續案』, 필사본, 송용섭 소장.
『冶城宋氏晩晦公派譜』, 대보사 간행.
이세동・정병호 역, 『국역 성산지』, 성주문화원 발행, 2010.
장석영 저・정우락 역, 『국역 흑산일록』, 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우인수, 「사미헌 장복추의 문인록과 문인집단 분석」, 『어문론총』 47, 2007.
崔英成, 「朝鮮儒學史에서의 四未軒 張福樞의 位相」, 『어문론총』 47, 2007.
권상우, 「19세기 嶺南退溪學의 定說과 創新의 二重奏」, 『儒敎思想硏究』 43, 2011.
임종진, 「晩求 李種杞의 삶과 사상적 특징」, 『南溟學硏究』 31, 2011.
전성건, 「大山 李象靖의 理主氣資說과 그 思想史的 意味」, 『退溪學과 儒敎文化』 58, 2016.
권영배, 「파리장서운동과 성주유림」, 『大丘史學』 137, 2019.

Abstract

Song Hong-rae(宋鴻來)'s life as a secluded scholar and his thought

Lee, Se-dong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en Song Hong-rae lived, it was a turbulent period of transformation in which the Joseon Dynasty collapsed and the land became a colon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life and thoughts of a scholar who was born as a people of Joseon during this turbulent period and was asked to live as a people of Japan. He was an intellectual who refused to be a Japanese people and wanted to remain a secluded scholar of Joseon. Refusing to become a citizen of Japan was a universal emotion of the land in that era, but not everyone was a secluded scholar. This is because a secluded scholar is a person who silently carries out the mission given by the times and goes on the right path by cultivating correctness and virtue. In this regard, Song Hong-rae was definitely a secluded scholar.

He went around looking for teachers to cultivate the righteousness. He did not distinguish between school and party in searching for teachers. Jang Bok-chu(張福樞) and Lee Jong-ki(李種杞) were his teachers who held a set ceremony, and from Kim Heung-rak(金興洛), Kim Do-hwa(金道和), Jang Seung-taek(張升澤) and Kim Hyung-mo(金瀅模), Kwak Jong-seok(郭鍾錫), Lee Seung-hee(李承熙) and Jang Seok-young(張錫英) of the Hanju school(寒洲學派) to Jeonwoo(田愚) of the Kiho school(畿湖學派), all were his teachers.

He learned from these teachers, cultivated virtue, learned learning, and became another teacher himself. His disciples were moved by the learning and virtue of this new teacher, and volunteered to build a school building and build a school to adore him. It is not a small number that about 100 people wore mourning clothes as disciples at his funeral.

He was a man who knew and practiced the right path required by the times. As a scholar of Joseon who has succeeded to the Confucianism, he signed a petition demanding Joseon's independence from all over the world. By boldly practicing this task, which may have to guarantee life, for righteousness, he became the representative of Joseon Confucianism with 136 comrades. That's why he is a secluded scholar of Joseon.

He did not write articles that could be called Neo-Confucianism, but his position on Neo-Confucianism, which was the basis of Joseon studies, was clear. With Toegye's theory as their motto, they supported and followed the views of teachers who tried to compromise the theories of the Kiho school. While making it clear that he was a member of the Toegye School, he would say that he kept his teacher's theory.

keywords :
Song Hong-rae(宋鴻來), a secluded scholar(處士), educator, Independence petition sent to Paris(巴里長書), Neo-Confucianism, the school of Toegye, theory of human mind as the integration of Li and Qi(心合理氣), theory that human mind is Li(心卽理)